

TK ‘안보 적임’ 洪...PK ‘적폐 청산’ 文...‘샤이 安’ 결집 변수



부산 ‘시선집중’ 6일 부산 사직야구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 대선 막판 부산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 /부산일보=윤민호 프리랜서 yunminho@naver.com



대구 ‘인산인해’ 대구 2·28공원에서 열린 한 대선 후보의 대구 유세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연설을 귀담아 듣고 있다. /매일신문=김영진 기자 kyjmail@msnet.co.kr

부산

정권교체 열망 文 강세 노령층 갈수록 洪 끌림 TV 토론 여파 安 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과반 돌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대역전이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바닥표 결집이나?

5·9대선 D-2인 7일 본보 기자들이 각 당이 승부처로 꼽고 있는 부산의 막판 민심을 가늠해 보기 위해 시민들을 찾아갔다.

부산의 최대 변화기인 서면에서 만난 고영진(37·회사원) 씨는 “누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낡은 패단을 청산하고 모든 국민에게 고른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이미 후보를 결정했다”면서 “적폐 청산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을 내세운 문재인 후보에게 소중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서면 롯데백화점에 놀러 나왔다는 최복희(74·가정) 할머니는 “시끄러운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 믿고 사전투표를 통해 홍준표를 찍었다”면서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주변 노인들의 생각이 다들 비슷해지더라”고 노년층의 분위기를 전했다. 최 할머니는 “선심성 공약에 의존하지 않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구 소재 부경대에서 만난 박성우(25·경영학과) 씨는 “20대들은 문 후보와 안 후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TV 토론회가 아무래도 안 후보에게 타격이 된 것 같

다”며 “개인적으로 TV 토론에서 말을 못했다고 대통령 자질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전히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중구의 국제시장에 남편과 장을 보러 나왔다는 결혼 3년 차 전업주부인 박현주(36) 씨는 “사임하는 남편은 은근히 홍준표 후보를 밀어주는 것 같은데 TV 토론을 보면서 심상정 후보에게 끌리게 됐다. 말도 잘 하고 똑똑하기도 한 것 같다. 같은 여자로서 신뢰가 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야기를 남편이랑 하면서 티격태격하기도 한다. 총선 때는 이렇게는 않았다. 그냥 무관심했다. 그리고 보면 우리 부부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 훨씬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제시장에서 택시를 탔다. 50대 중반 이라고 밝힌 이영식 기사는 “40대까지는 대세가 문재인인 것 같다. 60대 이상 80%는 홍준표다. 홍준표 애김 하는 사람이 최근에 늘었는데 바른정당 탈당자 복당은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다. 보수결집이 속도가 빠르지 국정농단의 책임론이 다시 부상하느냐가 관건일 수 있다. 우선이나 부산에서 심상정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특이한 추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본인의 후보선호에 대해선 웃음으로 대신했다. 그는 “아직 부동층이 많다. 투표장에 가서 결정하겠다는 사람도 많다. 나도 그럴 것 같다”고 답했다.

본보 기자들이 이날 부산에서 만난 유권자들 중에는 “누가 돼도 나라가 시끄럽겠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는 이들이 많았다.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든 통합의 정치가 급선무임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부산일보 서준영·이현우·김백상 기자

경남

문재인-홍준표 양강 구도 文 과반 관심·洪 안보 기대 安 ‘바닥 표심’ 역전 노려

경남 유권자들의 표심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1강 2중 후보를 중심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다. 경남은 이전 선거에서 보수 정당 후보에게 표심이 쏠렸지만, 이번 대선은 양상이 크게 달라 세 후보에 대한 관심을 고루 나타내고 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세대별로 표심이 뚜렷하게 나뉘며, 특히 보수층에선 안철수를 지지하던 표심이 홍준표 쪽으로 급격하게 이동해 경남은 문재인-홍준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은 문 후보의 정권교체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직장인 이경수(50·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씨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 곳곳에 쌓여 있는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많은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 과반의 지지를 얻어 향후 강력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은 홍 후보에 보수표가 결집돼 막판 역전할 것을 기대했다. 고려대 산업경영공학부에 재학 중인 백승호(27·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씨는 홍 후보의 지지를 변화

추이에 주목하며 “홍 후보는 기업 유턴정책과 강성노조 개혁 등을 말한다.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정당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다”고 홍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은 ‘샤이 안철수’의 표심으로 막판 돌풍을 예고했다.

주부 노말숙씨(53·자영업·김해시 진영읍)는 막바지에 ‘샤이 안철수’층이 나타나 2중 구도를 깨뜨리고 안 후보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안·홍 후보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주변에도 아직 누구를 찍을지 많이 고민한다”며 “이번에도 안철수라는 젊은 피를 수혈해 혼란을 겪고 있는 정국을 바로잡으면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경배(32·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씨는 “안 후보가 4차 산업혁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가 주도의 일자리 숫자만 늘리는 정책에서 벗어나 산업 구조를 바꿔 실질적인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어느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해야 할지 막판까지 고민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모습도 보였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권민찬(42)씨는 “진보나 보수나 문제가 아니다. 합리적인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놓고 고민도 된다. 단순히 지지율 1위인 될 만한 문 후보를 뽑는 것이 맞는지, 소신투표를 해야 하는 것인지, 투표장에 갈 때까지 갈등을 겪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경남신문 김용훈 기자

대구·경북

50·60 洪 보수 동남풍 막강 20·40 文 우세 속 安 인기 차차기 위해 일부 劉·沈 지지

5·9 대선 열차가 종점에 다달았다. 대선 열차에 탑승한 대구경북(TK) 승객들은 과연 몇 번 플랫폼으로 내릴까?

TK 민심은 대선 중·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전라적 투표 성향 탓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인 3번으로 쏠리는 듯했다. 하지만 2번 플랫폼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보수 결집에 나서면서 TK 보수층은 홍 후보에게 기울어지는 모양새다. 2040 젊은층들은 1번(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플랫폼으로 몰리면서도 4번(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과 5번(심상정 정의당 후보)으로 향하는 일부 기류도 파악된다.

하지만 아직 하차 플랫폼을 정하지 않은 ‘샤이 승객’도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TK 민심 풍향계는 현재 홍 후보의 보수 동남풍이 가장 강하고, 문 후보의 정권교체론도 상당수 먹혀들어가 분위기가

5060 중에는 홍 후보와 안 후보를 두고 저울질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고령층에는 안보이슈가 먹혀들어가면서 전라적 투표에서 홍 후보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나타났다.

대구에서 60년을 살았다는 한 여성은 “홍준표 찍겠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며 “TV 토론을 보면서 홍준표를 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2040에서는 문 후보의 우세 속에서 안 후보에 대한 선호도도 만만찮았다. 중도성향 유권자층에서는 대세론과 사표방지 심리 등이 작용, 보수 후보에서 개혁진보 후보로 갈아타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대구 수성구 아르바이트생인 김은미(23)씨는 “대기업 정책 등에서 문재인 후보의 정책이 이전 대선때보다 업그레이드됐다”며 문 후보 지지의사를 밝혔다.

대구 동성로에서 만난 한 대학생은 “홍준표 후보 빼놓고 모든 후보에 대해 고민이 깊다. 현재까지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경북 안동의 최예린(28) 씨는 “보수 정치인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정치의 자정작용을 위해 서라도 문 후보가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의 회사원 김성주(47)씨는 “문 후보만이 그동안 쌓인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한꺼번에 청소할 수 있는 적임자이며,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대구의 택시기사 최모(47) 씨는 “원래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지만 TV 토론을 보고 문 후보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했다.

일부 시민들은 유 후보와 심 후보에 대해서는 개혁보수의 새로운 아이콘, 진보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부상할 수 있는 만큼 차차기를 위해 의미있는 표를 몰아주겠다고 했다.

경북 포항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준혁(44)씨는 “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우리경제를 살리고, 북핵 위협에 처한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하게 지켜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매일신문 임성준 기자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풍암동 중심 상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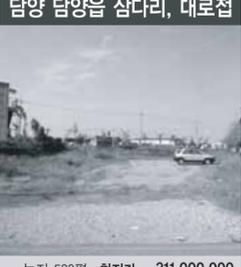
매대가격 1,700,000,000

광산구 오선동 공장(진곡산업단지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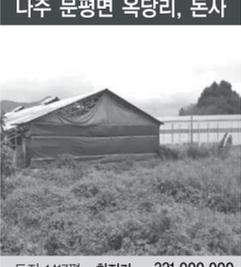
대지 2531평 최저가 4,278,000,000
건물 753평 감평가 6,112,000,000

담양 담양읍 삼다리, 대로점



농지 523평 최저가 311,000,000
개발축적지구 최고가 311,000,000

나주 문평면 옥당리, 돈사



토지 1417평 최저가 321,000,000
건물 484평 최고가 321,000,000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대지 415평 최저가 2,521,000,000
건물 577평 최고가 4,502,000,000

서구 화정동 원룸(화정역인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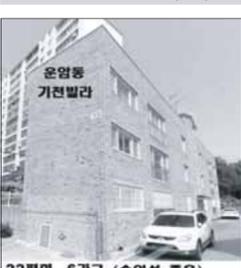
토지 94평 최저가 549,000,000
대지 157평 감평가 784,000,000

동구 금남로3가 근린시설



토지 118평 최저가 742,000,000
건물 305평 감평가 1,059,000,000

운림동 기전빌라



22평형 6가구 (수역성 전용)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용자 6,000만원 월세45만원

제일오피스텔 29층



감평가격 9,000만원
매매 6,300만원
보증금 500만 월세 25-40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